



[금융] 현대해상 이·조시대 세대교체로 '내실·성장' 두 토끼 05



Life

[라이프] 뉴요커 출신 비비고 K-푸드 인기 선드 너



세운상가 일대 보전·재생... 공공산업거점 8곳 조성한다

세운지구 152곳 정비구역 해제-재생 을지면역 관련 협의 결과 철거 결정 기계·인쇄 등 산업거점공간 조성 기존산업 보호하면서 신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700호 이상 공급



문화산업센터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기계·정밀·산업용재·인쇄 등 산업거점공간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700호 이상 공급한다.

서울시는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역

과 관련해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원칙을 견지하고 소유자 등과 협의한 결과, 을지면역 원형 그대로 보전되는 것을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간 후 2021년 세운5-2구역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를 희망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산업 골목재생 시범 사업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산업간 융화를 도모한다.

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코로나19 심리 방역 '마음 백신' 배포

시민 심리 안정 돕는 심리지원단 운영 심리 방역 위한 7가지 방법 소개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 카드뉴스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심리 방역'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공포심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코비드(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시민의 심리 안정을 돕는 전문가 집단이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단장으로, 응급의학과 및 내과 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리지원단은 이날 ▲격려 백신-나를 격려하기 ▲긍정 백신-좋은 일 하기 ▲실천 백신-수칙을 실천하기 ▲희망 백신-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정보 백신-도움받는 법 알기 ▲균형 백

신-이성의 균형 유지하기 등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를 소개했다.

시는 심리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심리 안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코비드19 심리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심리안정 콘텐츠를 15건 올린 결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대구 등 전국에서 4300명이 방문했다"며 "단기간에 8200여뷰를 기록하는 등 높은 조회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조회수별로 보면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안내 콘텐츠'가 2928건으로 1위였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1705건), 마음 백신(706건) 순이었다. 심리방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심리지원단은 카드뉴스를 활용한 '마음처방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시민에게 보내는 마음편지 '치유레터'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6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운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강화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메시지와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리안정 콘텐츠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4일 서울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TX 객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 3년만기 상환

연이율 3.9% 수익금 13억3700만원

서울시는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의 3년 만기가 도래해 참여 시민에게 투자원금과 연이율 3.9%에 해당하는 수익금 13억3700만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1호 연료전지 시민펀드는 난지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든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입된 사업비 1219억원 중 일부를 일반시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 펀드에는 총 119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투자원금은 114억원으로, 연이율 3.9%에 13억3700만원의 수익금을 달성했다. 시는 수익금 전액을 지난달 25일 상환 완료한 상태다.

지난 2017년 3월에 건립된 노을연료전지 발전소는 4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9000세대가 사용하는 열을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판매한다.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연료전지발전소. /서울시

2018년 여기서 생산된 전력량은 마포구 주택용 연간 사용전력량(593GWh)의 28% 수준인 165GWh였다.

시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00억 원 규모로 2·3호 연료전지 시민펀드를 내놓기로 했다. 2호는 서남물재생센터 내 서남연료전지 발전소, 3호는 암사정수센터 내 암사연료전지 발전소의 사업비 일부를 조달하는 데 쓰인다.

권민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수소경제 정착을 위해 더 다양하고 발전된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비→생산' 도시전환 실험 공모

자급자족 도시 목표... 최대 1억 지원

서울시가 소비 중심에서 생산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주도의 실험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전환 실험'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 순환과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탈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생활방식을

바꾸는 프로젝트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총 5억원이며, 5~8개의 프로젝트가 4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실험 규모, 도시 전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행 연구에 최대 2000만원, 실험 실행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이달 23~31일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로 선정된 실험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서울시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지식, 정보 등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팩토리(Fab City) 운동의 일부다. 팩토리 운동은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2054년까지 농업,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최소 50%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면서 시작했다. /김현정 기자